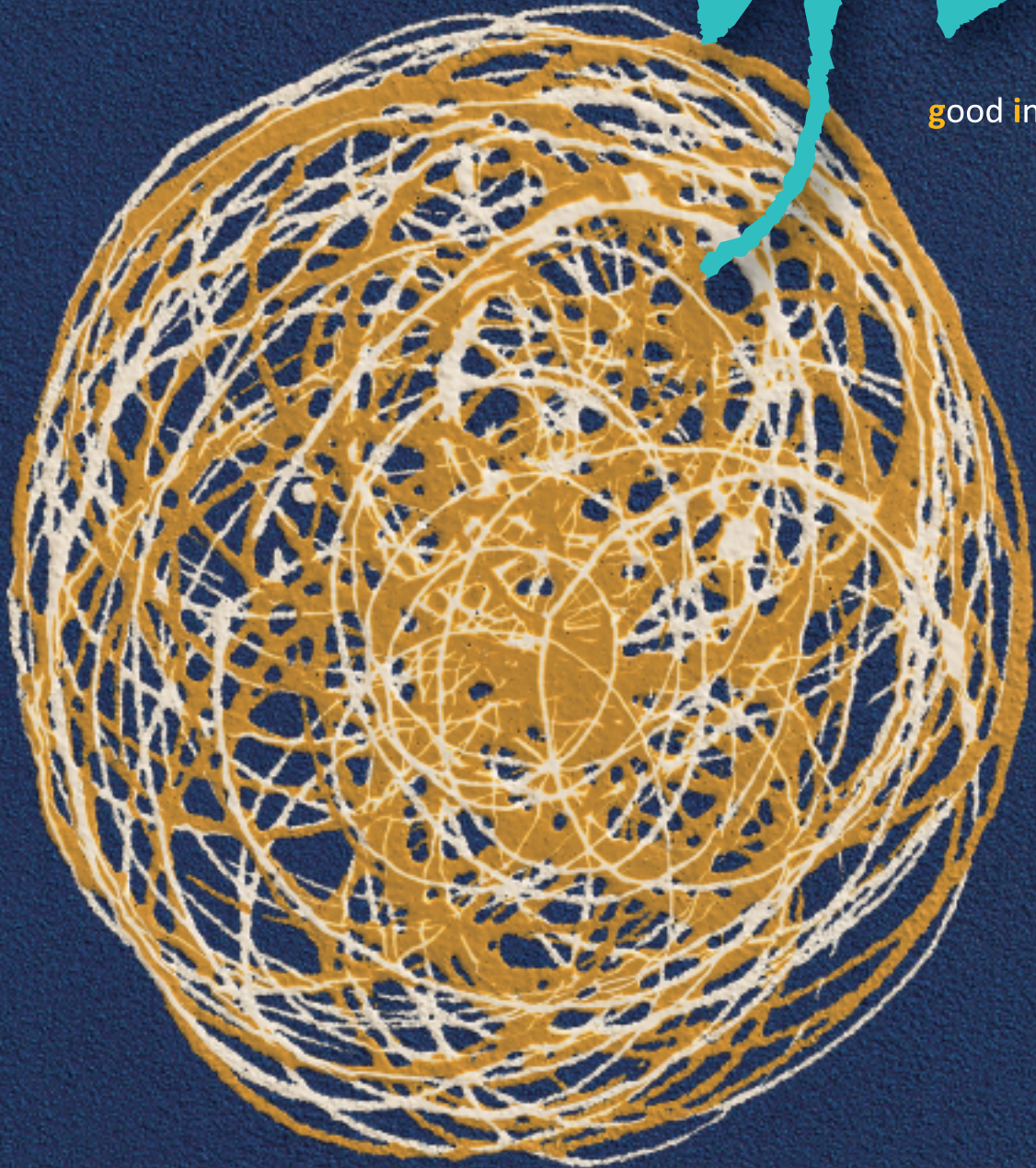


gil

good in life 길



Intro	05	인류의 반격, 일상이 저만치 옵니다
Interview	06	코로나 백신, 안심하고 접종받으세요
Medical Theme 1	10	백신 바로알기
Medical Theme 2	12	백신과 예방접종
Medical Theme 3	13	우리 아이 예방접종
Medical Theme 4	14	독감
Medical Theme 5	15	대상포진
Medical Theme 6	16	폐렴구균
Medical Theme 7	17	자궁경부암
Korean Medicine	18	보약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Memoirs	20	베를면 베를수록 커지는 환자와의 믿음과 사랑
Happy Story	24	지계(持戒)
Book	28	해를 보고 달을 보라. 그래야 산다
Travel	30	서울에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봄은사
Focus	34	여러분들과 함께한 UCC공모전 스토리
Introduction	36	의료진 소개
News	40	DUMC News
Together	43	기부금 안내

vaccine



인류의 반격, 일상이 저만치 옵니다

지난해보다 나아질 거야. 소박한, 그러나 간절한 덕담을 나누며 맞이한 새해, 반가운 외신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를 물리치고 106번째 생일을 맞은 영국 할머니 이야기였지요. 1915년생인 할머니는 제1 · 2차 세계대전과 스페인독감, 아시아독감, 홍콩독감에 이어 이번 코로나19까지, 두 번의 세계전쟁과 네 번의 팬데믹을 겪어냈답니다. 무엇보다 지난 연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데 눈길이 갔지요. 100세 넘은 어르신이 거뜬히 물리쳤다니, 그동안 숨통을 틀어 막고 있던 코로나19로부터 잠시 해방감같은 걸 느낀 거지요.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에 짓눌려 한해를 놓치고 다시 한해를 얻었습니다.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소중한 것들이란 걸 깨닫기 위해 치르는 대가치고는 너무 혹독했지요. 그래서인지 지난 연말 영국에서 시작된 백신 접종 소식만으로도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이 오는 걸까요.

인류 최초의 백신인 천연두 백신 ‘우두(cow pock)’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접종을 꺼렸습니다. 균을 몸에 넣어 병을 막는다는 방식이 당시로선 낯설다 못해 두려웠을 겁니다. ‘우두(소에서 발견한 병원균) 백신을 맞으면 소로 변한다’는 괴소문까지 퍼졌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런 불신과 불안도 치사율 30%를 넘는 천연두 공포 앞에선 무의미해졌지요.

천연두 백신 이후 흑사병과 광견병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다시 87년이 걸렸지만, 20세기 접어들면서 콜레라, 장티푸스, 파상풍, 소아마비, 홍역, A형 간염 백신에 이르기까지 질병에 대한 인류의 반격은 빠르고 강력해졌지요. 그에 힘입어 코로나19 백신이 유례없는 속도로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갈 길은 아직 멀니다. 그러나 분명 우린 일상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코로나 백신, 안심하고 접종받으세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감염내과
최 승 임 교수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염병의 무서움을 새삼 느끼던 한해였다.
세계적 팬데믹 사태 앞에서
초고속 개발로 백신이 탄생했다.
미국과 유럽 등 접종을 시작한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2월말부터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그런데 새로운 형태의 백신이라
남들 맞는 거 보고 맞겠다는
'안전제일주의' 자세의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최상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감염내과
최승임 교수에게 코로나19와 백신에
대해 들어보았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전국민이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백신이 나와 접종이 시작
되니 이제 살았구나 싶은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은 새로운 형태의 백신이라 우려와
염려도 큼니다. 기존 백신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백신이란 병원체인 미생물을 인체에 인위적으로 투여하여 면역을 갖게 할 목적으로 개발한
면역유발약제를 말합니다. 미생물의 독성을 약하게 만든 생백신과 미생물을 비활성화시키
거나 미생물의 일부만 넣어주는 사백신으로 크게 나뉘볼 수 있지요. 지금까지 나온 백신들은
보통 개발에 10~20년이 걸렸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백신들은 매우 빠르게 개발되고 있죠. 이
중 DNA백신, mRNA백신은 새로운 형태의 백신인데요, 염기서열만 알면 개발이 빠르고,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도 대처가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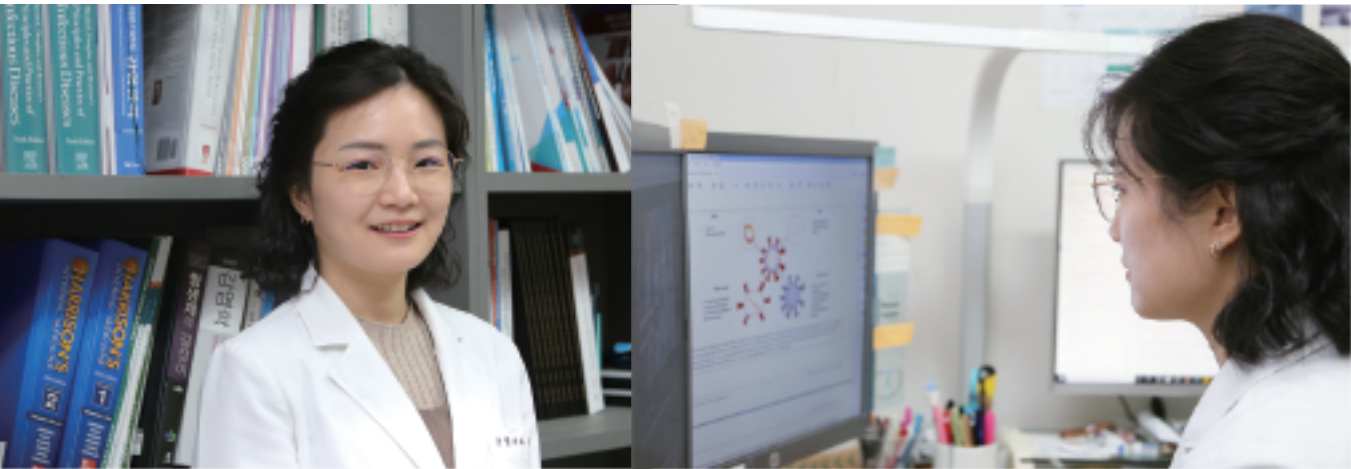
DNA, RNA 백신이라 우리 몸의 DNA를 변형시키지 않느냐고 불안해하는 분도 있어요.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때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 유전체가 들어와서 면역을 일으키는
기전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유전자가 바뀔 걱정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백신마다 보관온도, 접종방식 등이 많이 달라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백신을 만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대표적인 mRNA 백신인데요, mRNA는 messenger RNA(전령
RNA)를 뜻하는 말입니다. 항원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단기간 내에 대량생산이 가능하지만 RNA분해효소
(RNase)에 주성분인 RNA가 쉽게 분해되어 안정성이 좋지 않아 냉동의 콜드체인이 필요
합니다. 모더나의 지질나노입자가 mRNA를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영하
20도에서는 4개월, 2~8도에서는 한 달을 버틸 수 있어요. 반면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다뤄야 하지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바이러스백터 백신인데 항원 유전자를 인체에 무해한 다른
바이러스에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침팬지에게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백터(전달체)로 사용합니다.
중국의 시노팜 백신은 불활화백신으로 사멸시킨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체내에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합니다. 흔히 사(死)백신이라 부르는 형태입니다.
미국 노바백스 백신은 재조합백신으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코로나19의 바이
러스의 표면항원단백질을 직접 주입하여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백신접종이 곧 시작되는데요, 한꺼번에 모든 물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맞을
지가 관건이겠어요.

팬데믹 상황에서 누구 먼저 접종할 것인지 각 나라별로, 또 국제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1순위는 의료진과 필수인력, 2순위는 고위험군(고연령이나 집단생활하는



사람들)이지요. 먼저 들어오는 백신을 순서대로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접종은 고위험군의 사망률을 낮추려는 목적이예요. 후반기는 집단면역을 높이기 위해 접종대상자가 확대되지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순차적으로 내 순서가 되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각에서는 남들 맞는 거 보고 나중에 맞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이 우려되어 그러는 것 같은데요. 백신 꼭 맞아야할까요?

승인된 백신은 임상실험 데이터가 확인된 것이고 현재까지 연구결과들을 보면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백신접종 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요. 예방접종 때문에 생긴 부작용은 국가가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겠지요.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될 때 쯤이면 해외에서 실제 투여한 환자들에게 서의 안정성을 어느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몇 년 전 홍역이 유럽에서 확산됐을 때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많이 걸렸었지요. 안정성이 확보된 백신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은 옳지 않습니다. 본인이 고위험군일 때, 혹은 주변에 고위험군이 있을 때는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감염전문의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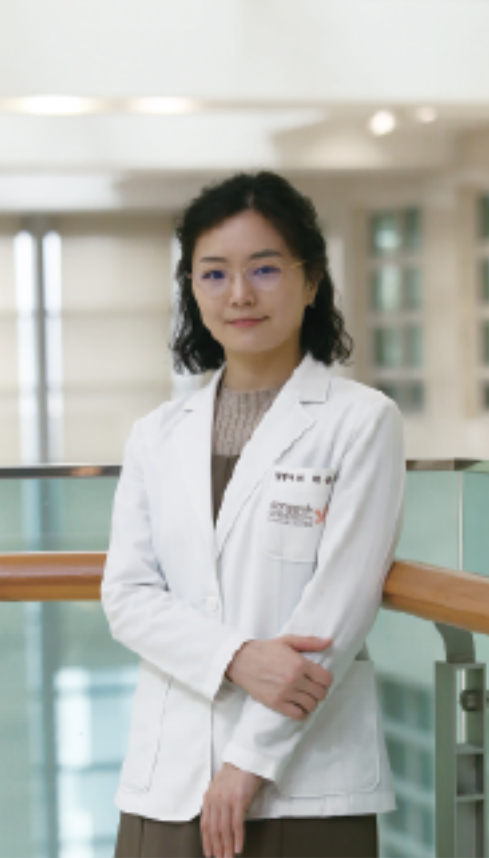
저는 신종플루가 유행한 첫 해에 걸려 고생했었는데요. 치료약인 타미플루가 나와서 이제 걱정을 덜하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해마다 겨울이면 신종플루 환자들이 나옵니다. 신종플루처럼, 코로나19도 우리와 함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신으로 예방하고 치료제 나오면 치료하면서 감염률과 사망률을 낮춰서 가는 거지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팬데믹X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메르스 때의 뼈아픈 교훈으로 감염병 매뉴얼이 생겼고 국민들의 인식도 변해서 코로나 초기대응을 잘 할 수 있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공중보건에 관한 시스템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야겠지요.

지난해에는 개인위생을 잘 지켜서 감염병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서 수족구병, 단순 감기 같은 감염병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올해 독감 환자분을 한명도 못 만났어요. 개인위생을 습관화해서 앞으로도 잘 지키신다면 많은 감염병에서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너무 무거운 얘기만 나눈 것 같아 가벼운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은 감염내과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레지던트 때 감염내과를 도는데 공부할 게 엄청 많았어요. 힘들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같은 세균이라도 머리에 생기느냐 발에 생기느냐에 따라 증상, 투약기간, 기전이 다 달라요. 다양한 환자를 만날 수 있고, 다양한 과와 연계해서 계속 공부해야 하는 과라서 매력적이었어요. 가장 매력적인 것은 완치 라는 개념이 있다는 점이지요. 환자분에게 “저랑 오늘 이후로 이별해요.” 라고 말할 때 너무 좋습니다. 🌸



감염내과 최 승 임 교수

전문진료분야
감염질환(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병원감염, 예방접종,
해외여행상담

경력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서울아산병원 인턴
서울아산병원 내과 전공의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전임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플랫폼 종류

	개발방식	예방효과	유통방식	접종횟수	가격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mRNA	95%	-70℃ ▶ 초저온 보관	3주 간격 2회 접종	19.5달러
모더나 미국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mRNA	94.1%	실 온 ▶ 12시간 보관 2~8℃ ▶ 30일 보관 -20℃ ▶ 6개월보관	4주 간격 2회 접종	15~25달러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대학교	바이러스벡터 (전달체)	70.4%	2~8℃ ▶ 6개월 보관	4주 간격 2회 접종	3~5달러
안 센	바이러스벡터 (전달체)	3상 진행중	2~8℃ ▶ 3개월 보관 -20℃ ▶ 2년 보관	1회 접종	10달러
노바백스	합성 항원단백질	3상 진행중	2~8℃ 보관	3~4주 간격 2회 접종	13달러

백신

바로 알기

역사

15세기 경에 이미 중국에서는 천연두 환자의 피부 상처 딱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식(천연두 접종)으로 천연두에 대한 면역력을 획득한 경우가 있었다. 이를 통해서 약한 천연두 증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증상이 심각하지는 않았고, 2주에서 4주 정도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전해진다.

1세대 백신 개발은 우두를 이용해서 천연두를 치료하는 방법을 제안한 사람으로 잘 알려진 에드워드 제너(Edward Jenner)에 의해 이루어 졌다. 에드워드 제너는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인간에게는 약한 증상만 일으키는 우두에 노출되면서 오히려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천연두를 예방하기위해 우두를 접종하였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이는 우두가 천연두와 유사한 항원결정 부위를 가지지만 인간에게는 독성이 미약하기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천연두 예방법(vaccination, 소를 뜻하는 라틴어 vacca에서 유래)은 천연두 접종보다 훨씬 안전하기에 천연두 예방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2세대 백신 개발은 1880년대에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r)에 의해 이루어졌다. 파스퇴르는 광견병 백신, 콜레라 백신 등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때까지만 해도 독성이 없는 병원체를 통한 질병 예방 방법을 백신이라 부르지 않았었지만, 파스퇴르가 제너의 천연두 예방법을 기리기 위해서 자신이 개발한 광견병 예방법을 백신이라 부르게 되었고, 이것이 백신이라는 이름의 유래이다.

그 후 소아마비, 인플루엔자, 홍역, 파상풍, 디프테리아 등 다양한 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질병들의 발병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가령 미국에서 소아마비의 경우, 1988년도에는 35만 명이었던 감염자가 2015년의 경우 74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원리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은 크게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구분된다. 그 중 후천성 면역은 여러 특징을 갖는데, 그중 하나가 면역 기억이다. 후천성 면역의 기억은 이전에 인체에 침범했던 병원체의 정보를 기억하여, 미래에 같은 병원체에 감염되면 이에 대해 더 빠르고 강한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기억 작용은 기억T림프구와 기억B림프구에 의해서 일어나며, 백신은 이런 기억 작용을 이용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을 통해 병원성은 없지만, 특정 병원체에 대한 항원을 인체에 주입하면 우리 몸에서는 가벼운 증상, 혹은 질병에 대한 증상 없이도 병원체에 대한 기억 림프구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억 림프구는 백신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홍역 백신 같은 경우에는 평생 동안 그 기억을 유지할 수 있다.

종류

백신의 기본 원리는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배양하여, 죽이거나 약독화하여 병원성을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비병원성 항원을 주입하는 것이 기초적인 원리이다. 최근에는 클로닝을 비롯한 유전공학 기술이 발달하여 다른 방법으로 비병원성 항원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사백신(inactivated vaccine) 사백신은 배양한 병원체를 죽이되, 항원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여 만든 백신이다. 소아마비, 콜레라, 인플루엔자 백신 등이 이에 속한다.

약독화/생백신(attenuated vaccine) 병원체를 죽이지는 않지만, 약독화 된 상태로 주입하여 병을 일으키지 않게 해주는 백신이다. 볼거리, 홍역, 장티푸스 백신 등이 이에 속한다.

독소이드 백신(toxoid vaccine) 병원체 자체가 아니라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독소를 비활성화시켜서 만든 백신이다. 비활성화된 독소를 독소이드라고 하며,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이 이에 속한다.

이종 백신(heterotypic vaccine) 목표 병원체와 유사하지만 병원성이 낮은 병원체를 이용한 백신이다. 제너가 우두를 이용해서 만든 천연두 백신이 이에 속한다.

아단위 백신(subunit vaccine) 병원체 중 항원으로 인식되는 항원결정부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따로 추출해서 만든 백신이다. 이 아단위 입자들은 병원성을 갖지는 않지만,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기억 림프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모든 병원체가 이런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단위 입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항원을 파쇄해서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 아주 극소량의 병원체만으로도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1세대 B형 간염 백신이 이에 속한다.

재조합 백신(recombinant vaccine) 재조합 백신은 병원체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하여 병원체의 항원결정부위만을 따로 생산하여 이를 주입하는 백신이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고, 항원결정부위 외에 다른 병원체의 성분은 전혀 포함될 수 없기에 100% 안전하다. 다만 개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세대 B형 간염 백신이 이에 속한다. 🌸

백신과 예방접종

백신은 현대의학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감염을 차단하는 백신의 개발로 인해 고통스러운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설사 감염이 되더라도 심각한 합병증과 후유증 없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전염병에 감염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백신을 몸에 투여하는 것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전에는 어린이들의 예방접종만 강조되고 성인이 되어서는 예방접종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노인,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이 증가하면서 성인예방접종의 중요성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평생 건강을 지켜내는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방접종 분류

국가 예방접종

국가 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과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권장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 결핵(BCG, 피내접종)
- B형간염(HepB)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 파상풍/디프테리아(Td)
-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 폴리오(IPV)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DTaP-IPV/Hib)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 폐렴구균(PCV, PPSV)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 수두(Var)
- A형간염(HepA, 소아용)
- 일본뇌염(IJEV, 불활성화 백신)
- 일본뇌염(LJEV, 약독화 생백신)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2·4)
- 인플루엔자(IIV)
- 장티푸스(ViCPS, 고위험군 대상)
- 신증후군출혈열(HFRS, 고위험군 대상)

기타 예방접종

기타 예방접종은 국가지원 대상 외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입니다.

- 결핵(BCG, 경피접종)
- 일본뇌염(LJEV, 키메라 바이러스 생백신)
- 로타바이러스(RV)
- 수막구균(MCV4)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9)
- A형간염(HepA, 성인용)
- 대상포진(HZV)

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예방접종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승만 교수

전문진료분야
소아 소화기 및 영양,
신생아학

우리 아이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시기에 따른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야외활동을 하기가 힘든 시기이지만 향후 개학 및 외부활동 증가로 인한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빠뜨린 예방접종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로타바이러스 접종과 수막구균 접종 및 일부 미숙아들에게 사용되는 호흡기융합바이러스(RSV) 접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접종을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경우 소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연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접종 계획에서 빠져 있는 상태이지만 대부분의 소아청소년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성인에 비해서 증상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방접종 스케줄은 예방하고자 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아주 다양하다.

어떤 것은 두 번 만에 접종이 완료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네 다섯 번씩 맞는 것도 있다. 그 결과 몇몇 접종이 누락되기도 하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접종 횟수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접종 후 항체생성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A형 간염의 경우는 두 번만 맞아도 항체 생성률이 거의 90% 정도 되지만, MMR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백신)의 경우는 총 네 번을 맞아야 항체생성률이 감염에 대항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接种의 효과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는 빠뜨린 접종이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있다면 꼭 챙겨서 맞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항체생성률도 높일 수 있고, 드물지만 기존에 맞았던 접종 덕분에 아직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획득할 수도 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예방접종,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예방접종 스케줄을 꼼꼼히 확인해 보자.

예방접종

독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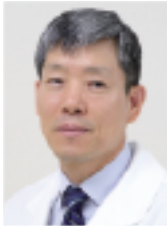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가정의학과
이 동 욱 교수
전문진료분야
생활습관병(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노인병, 비만



독감 예방접종은 2020년 대상자 접종이 64%로 평년에 비해 줄었지만, 매년 접종 대상자 중 70% 정도 시행하고 있는 접종이다. 독감 접종을 하면 어떤 분들은 감기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감기는 목감기, 기침감기, 콧물감기, 몸살 감기 등 다양하며,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도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며, 일반 감기보다는 고열과 몸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도 감기에는 걸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10월 후반부터 소아와 어르신, 임신부에게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 대상 범위가 늘어나 생후 6개월 이상 18세 이하, 62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가 무료접종 대상이다. 물론,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20대~50대에게도 접종을 권고한다. 또한 2020년부터 독감 백신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바뀌었다. 3가에는 A형 독감 2종류, B형 독감 1종류가 포함되어 있고, 4가에는 B형 독감이 2종류로 3가 보다 1가지 더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3가 독감 백신 보다는 4가 독감 백신이 더 예방 효과가 높다. 독감 접종은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는데 접종 후 바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 후에도 최소 2주는 조심을 하여야 한다. 독감 접종이 늦었거나,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으면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접종을 하고 2주 정도 조심 하거나, 유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하고 2주간 예방약을 복용하면 된다. 접종 후 예방 효과는 4~6개월 정도 지속되고, 매년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하기 때문에 독감 접종은 매년 하여야 한다. 독감 예방접종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독감에 걸린 어린이, 노약자, 면역이 떨어진 사람 중 회복하지 못하고 합병증으로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을 하는 것이다. 유행을 하는 독감으로부터 서로가 도움을 받으려면 더 많은 사람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 집단 면역이 생겨야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독감 예방접종은 나와 주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방접종

대상포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성 낙 진 교수
전문진료분야
가정의학(흔한질환),
건강상담, 금연클리닉,
건강증진, 스트레스 관리



대상포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심한 통증, 특히 수개월 동안 지속하는 통증이다. 진료실에서 대상포진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통증을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기 때문이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앓은 후에 몸에 남아서 공존하고 있는 수두 바이러스가 숙주(사람)의 면역력이 약해진 시기에 증식하면서 다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초기 증상은 열감, 두통, 권태감, 근육통이 있어 감기와 비슷할 수 있지만 피부에 발생하는 찢는 듯한 통증은 명확히 다른 점이다. 이후에 띠 모양의 붉은 반점이 몸 한쪽에 나타나면 진단에 어려움이 없다. 붉은 반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개의 물집(포진)이 모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대상포진(띠 모양의 물집이 있는 발진)이라고 이름이 붙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나이는 보통 50세 이후이다(공식 지침은 60세 이후). 현재까지는 평생 한 번만 맞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상포진을 앓고 회복한 경우에도 6~12개월 경과 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도록 권고하는 것이 일반적 예방접종과는 다른 점이다.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생백신(독성을 약하게 만든 살아있는 바이러스)이기에 독감백신이나 폐렴 구균 백신과 같은 사백신(죽은 병원체를 이용해서 만든 백신)과는 같은 날 접종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방접종을 한 경우 대상포진 발생이 50대에서 69.8% 감소하였고 60대에서 64%, 80세 이상에서는 18% 감소하였다. 예방접종 후에는 대상포진을 앓아도 증상이 약하였으며 나온 후에도 사람을 괴롭히는 대상포진후신경통의 빈도도 66% 감소하였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수두 백신과 같은 바이러스이지만 10배 이상의 용량을 함유하고 있다. 수두를 앓지 않은 사람에서는 맞지 않거나 수두백신을 맞아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50세 이상은 어릴 때 대부분 수두를 앓았을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행복이란 주관적인 면이 강하지만 직접적인 괴로움인 통증이 있다면 행복하기가 어렵다. 행복한 나날을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규칙적 운동, 균형 잡힌 식생활,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추가하는 것을 권고 드린다.

예방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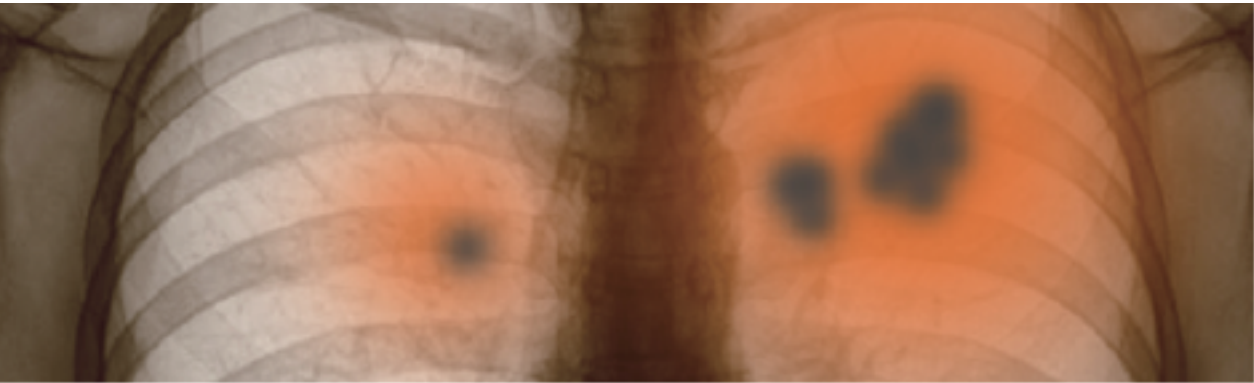
폐렴구균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호흡기내과

박주희 교수

전문진료분야
급·만성 호흡기질환,
폐렴, 결핵,
폐암



폐렴은 65세 이상의 고령 및 면역이 떨어지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고위험 환자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이에 고령이나 만성질환, 면역저하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할 것을 추천한다.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세균 뿐 아니라 바이러스, 곰팡이, 결핵균 등 다양하지만 그 중 가장 흔한 것이 세균이며, 세균 중에서도 폐렴 구균이 세균성폐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이다. 현재 가능한 예방접종은 이 폐렴구균에 대한 것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3가 단백 결합 백신과 23가 다당 백신

이 두 가지 중, 13가 단백 결합 백신 접종이 항체를 더 많이 형성하고, 항체 역가가 오래 지속되어 예방효과가 길고 면역효과가 좋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1회 접종으로 가능하나,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23가 다당질백신은 65세 이상에서는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데, 65세 이상에서는 1회 접종을 받으면 되고, 65세 이전에 맞았던 분은 예방 접종을 한 후에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 항체 역가가 줄어 들어 예방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5년이 경과한 후에 1회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원칙

건강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13가 또는 23가를 접종하고,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기종, 천식, 만성 심질환, 당뇨, 만성 간질환, 알코올 중독) 및 면역저하자(만성 신부전, 신증후군, 기능성/해부학적 무비증, 면역억제 환자)는 13가와 23가를 모두 접종할 것을 추천한다. 13가를 먼저 맞은 경우에는 최소 8주 후에 23가 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23가를 먼저 맞은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13가를 접종해야 한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폐렴구균에 대한 항체만을 형성하기 때문에 다른 원인의 폐렴 원인균 등에 대한 예방 효과는 없다. 따라서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에도 다른 종류의 미생물에 의해 폐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체 역가가 떨어지면,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도 발생할 수 있다. 허나, 폐렴구균에 의한 감염의 중등도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자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할 것을 추천한다.

예방접종

자궁경부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임가원 교수

전문진료분야
부인암, 부인과 양성질환(양성종양,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부인과 내시경수술(단일공수술, 복강경수술, 자궁경수술),
재발성 부인암의 치료 및 완화치료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예방백신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다. 흔히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궁경부암 뿐만 아니라 외음부암, 질암, 항문암, 전암단계인 자궁경부 및 외음부 등의 상피내 종양의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접종 종류에 따라서는 생식기 사마귀의 예방에도 사용된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인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

인유두종바이러스 (Human papillomavirus,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고 있는 남녀 중 적어도 50~80% 정도가 일생 동안 한 번은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PV의 여러 아형 중 고위험군인 발암성 아형이 자궁경부암과 연관성이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인체의 면역체계에 의해 제거되어 감염자의 90%가 2년 이내에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 백신 종류와 접종 대상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은 2007년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으며 예방하는 HPV 아형에 따른 2가, 4가, 9가 백신이 있다. 접종 대상은 만 9~45세 여성 및 만 9~26세 남성으로, 최근 남성이 접종 대상으로 추가되고 연령 범위가 확대되었다. 만 9~14세의 경우 백신의 면역원성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기존의 3회 접종이 아닌 2회 접종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HPV예방백신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되어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2회 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예방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호주, 덴마크 등 일찍이 HPV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한 국가들에서는 이미 자궁경부의 상피내 종양 및 생식기 사마귀 등 HPV 관련 질환의 유의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이미 HPV에 감염되었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염되지 않은 HPV 아형의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접종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급적 성 노출 이전에 또는 이른 연령(17세 미만)에 접종을 하는 것이 효과적 측면에서 권장되며 자궁경부 병변에 대한 예방 효과는 접종 후 1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HPV 예방백신은 전반적으로 매우 안전한 백신으로 평가되며 접종 후 가장 흔한 이상반응으로는 접종 부위의 통증, 부어오름과 발적 등의 국소 반응이다. 전신 이상반응으로는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예방접종 전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하여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이고, 접종 후에는 20~30분 동안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반응이 생기지 않는 지 관찰해야 한다. 🌸

보약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현재 많은 사람들이 보양제라고 하면 그저 허한 몸을 보충하는 용도로만 알고 있지 허증에는 氣(기) · 血(혈) · 陰(음) · 陽(양)의 구분이 있는 데다, 또한 보양제마다 각기 독특한 약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못 사용했을 경우 허증을 보양하는 효과를 얻기는커녕 도리어 건강과는 상반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음허증을 가진 환자가 ‘인삼’을 보양제로 복용했다면, 이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음허의 증상이 개선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元陽(원양)의 향진이 가중되어 경미한 경우 코피가 흐르는 정도로 그치지만 심각한 경우는 뇌일혈 등을 초래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또한, 陽虛(양허)의 증상(추위를 타고, 사지가 차고, 소변을 오래보고, 대변이 묽고, 혀에 백태가 끼고, 맥이 느리고 힘이 없는 증상 등이 나타남)이 있거나 氣虛(기허)의 증상(피곤하고,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고, 배가 고프지 않고, 사지가 나른하고, 숨이 가쁘고, 식은땀이 나고, 혀의 색이 옅으면서 박태가 끼고, 맥이 약한 증상 등이 나타남)이 있을 때 ‘생지황’ 같은 음액을 보양하는 약물을 복용한다면, 아궁이의 불이 꺼져갈 때 장작으로 불을 더 지피는 것이 아니라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는 것과 같아서 오히려 陽氣(양기)를 더욱 손상시킴으로써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종종 우리의 몸이 계절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몸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체력이 약하다고 느끼면 흔히 보약을 찾게 되는데, 이처럼 체력을 도와주는 보약의 선택도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보법은 氣(기) · 血(혈) · 元陰(원음) · 元陽(원양) 등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물질의 손상 이나 장부기능의 쇠퇴를 치료하는 한의학 고유의 치료방법이다. 기본물질의 손상으로 나타나는 허증의 종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원음과 원양, 기, 혈, 진액 등으로 기본물질은 인체에서 그 작용이 각기 다르므로 쇠약해진 물질이 무엇이나에 따라 陰虛(음허)와 陽虛(양허), 氣虛(기허), 血虛(혈허)증으로 나타나게 된다.

● **기허증** 기의 작용이 약해지면 발생하는 증상의 일례로 혈액과 진액 같은 물질의 비정상적 유실을 야기해 **과다월경, 출혈, 식은땀** 등의 증상이 발현하는데 특히 기허로 야기되는 출혈에 귀비탕을 사용하여 ‘補氣攝血(보기섭혈)’하게 된다.

● **혈허증** 장부조직의 자원과 영양상태의 하강을 초래하므로 주요증상으로 일명 ‘一黃五白四不養(일황오백사불양)’의 증상을 야기(얼굴이 푸석하고 광택이 없다/얼굴 결막 입술 혀 손톱색이 창백하거나 옅다/심장, 간장, 顙目(두목), 사지를 혈액이 자양하지 못함)한다. 혈허는 혈액의 과도한 소모, 생성부족 이외에 기부족으로도 발생하므로 이때에는 당귀보혈탕 처럼 보혈약에 보기약을 첨가해서 보혈의 효과를 배가 시킨다.

● **음허증** 원음이 쇠약해지면 ‘건조증과 원양의 편성’을 특징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음허증을 초래하며 이와 동시에 원음의 쇠약은 장부기능의 실조를 야기하는데, 육미지

황탕을 기본처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음허증상은 양쪽 광대뼈 부위가 붉고, 가슴이 답답하며, 불면, 이명, 화를 쉽게 내는 것 등과 마른기침, 가래는 없거나 피가 섞인 가래, 수척해짐, 허리 무릎이 힘이 없고 통증, 오후나 야간의 조열, 성욕항진, 유정(남), 월경과소 혹은 폐경(여) 등이다.

● **양허증** 원양은 각종 생명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는 에너지의 근원이며, 다른 기본물질과 또 다른 점은 주기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낮에는 양기가 밖으로 분출돼 각종 활동이 이루어지고 밤에는 다시 되돌아와 저장되니 점차 휴식과 수면상태로 들어가게 한다. 또한, 사계절의 변화를 따라 체내에서도 생리리듬의 주기적인 변화가 있다. 이런 양기의 주기적인 변화는 인체가 수시로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후조건에서도 체내의 환경과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원양이 쇠약해졌을 때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열량 부족으로 추위를 타는 것이며, 이외에 신진대사의 감퇴와 약화가 나타나니 기초체온하락, 땀은 없거나 약간 나는 편이며, 소화 기능 감퇴, 팔뚝질 등 증상이 나타난다. 원양의 쇠약은 선천적인 부족과 후천적인 소모 및 손상이 원인이며, 특히 약물에 의한 손상으로 나타나는 양허증은 암이나 다양한 염증질환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든지 간에 천편일률적으로 ‘청열해독’하는 찬 성질의 약물을 흔하게 처방하는 관행이나, 이런 종류의 약물을 한 번 처방하기 시작하면 거둬 같은 처방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인체의 양기가 나날이 손상을 받아 고갈되는 부작용을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 보양의 대표적인 한약물이 녹용이다.

이상과 같이 체력을 보강하고자 사용하는 보약도 엄연한 약이므로, 그저 몸에 좋다고 무분별하게 복용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병리지식과 이에 따른 정확한 맞춤약의 적용이 요구되니 보약의 오남용에 따르는 부작용과 위험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한방내과

서 윤 교 교수

전문진료분야
호흡기 및 소화기장애,
알레르기 면역질환,
과민성질환, 만성피로,
총명클리닉, 갱년기클리닉



베플면 베플수록 커지는 환자와의 믿음과 사랑

본 내용은 환우와 가족을 대상으로
공모(2019. 10. 28~12. 20)한 동국대학교병원
‘치유 & 사랑’ 투병·간병 수기 공모전에서
‘감동상’을 수상하신 이문희 님의 글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한여름의 더위를 이겨가며 전치 태반이라는 위험까지 무릎 쓴 채 나는 아래로 처진 배를 움켜잡고 환아의 이름을 부르며 진료실을 왔다 갔다 하였다. 분만 날을 받아놓은 상태여서 행여나 하루라도 빨리 조산을 할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뱃속의 아기도 엄마의 마음을 알았는지 드디어 원하던 날과 원하던 시간으로 나는 수술대에 오를 수가 있었다.

첫째를 갑자기 제왕절개 하였기에 둘째는 선택의 여지없이 제왕절개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둘째는 전신마취가 아닌 부분마취를 선택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아무래도 부분마취를 하면 아기를 안아 볼 수도 있단 생각에 굳이 전신마취를 택할 이유도 없었다. 수술대 위에서 나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예쁜 아기를 안아 볼 수 있단 생각에 척추에 긴 바늘이 아픈 줄도 몰랐다. 척추 마취가 끝나고 얼마쯤 시간이 흐른 뒤에 드디어 “응에 응에”하며 아기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렸다. “공주입니다.”하는 목소리와 함께 내 품안에 안긴 아기의 얼굴도 희미하게 나는 수면제를 맞고 스르르 잠에 빠져드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쉬기가 힘들어서 호흡곤란까지 왔다.

정신이 좀 흐릿했지만 힘껏 “선생님, 숨을 못 쉬겠어요.” 하고 나도 모르게 주먹으로 내 가슴을 마구마구 때리자 의료진이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대었고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출산의 기쁨도 느낄 틈 없이 수술실에서 나오자마자 분만 회복실이 아닌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보호자를 찾는다고 방송도 나왔다고 한다. 정말 응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았다. 언니도 나와 같이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언니는 그날 휴무였지만 집안 청소 후 나의 수술 시간이 끝나면 온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수간호사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왔다고 한다. 이모를 보자마자 우리 큰딸이 “이모, 빨리 엄마한테 데려다 주세요, 빨리요.”하면서 소매를 당기며 중환자실을 가리키며 계속 울었다고 한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심장혈관내과 교수님께서 심장초음파를 하셨고, 마취과 교수님, 산부인과 교수님, 전담 간호사 선생

님이 모두 오셔서 나의 상태를 살피셨다. 그리고 핵의학 검사 및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검사를 마쳤다. 원인은 색전증인 것 같다고 하셨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숨쉬기가 힘들고 또 갑자기 호흡정지가 와서 사망까지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말로만 들던 무서운 색전증, 손 써볼 틈도 없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생각에 순간 온 몸이 부르르 떨리고 소름이 끼쳤다.

다행히 중환병원이어서 모든 과 교수님들의 빠른 협진이 이뤄 질 수 있었고 나도 무사 할 수 있었던 생각에 모든 의료진에게 정말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다. 면회시간이 되자 언니가 먼저 우리 큰 딸을 데리고 중환자실로 들어왔다. 언니를 보자마자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우리 자매는 동시에 같이 울기 시작했다. 큰딸도 엄마하며 같이 울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언니와 가족들을 어찌면 못 볼지도 몰랐다는 생각에 더 서럽게 울었던 것 같다. 세상에 빛을 본지 얼마 안 되는 둘째는 말할 것도 없이... 가족들을 생각하니 더욱 슬펐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니 이 모든 것이 정말 한순간 이었고 하루 아침의 꿈인 것만 같았다. 멀쩡한 펜탈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자체만 해도 너무도 힘들었지만, 아파서 신음하는 환자 목소리, 면회 오던 사람들의 우는 소리, 의료진들의 다급한 목소리,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기는 사람, 일일이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사실도 힘들었다. 만약에 내가 심장지까지 왔더라면, 두 번 다시 가족들 얼굴조차 못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들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고마움과 가족들을 볼 수 있고 가족들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짧지만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 볼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처음 입사하여 이틀간 중환자실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 할 때가 생각났다. 그때 한 분 한 분 백케어를 하고 환의를 갈아입혀 드렸을 때와 똑같이 나 또한 도움을 받게 되었다. 환자의 힘든 고통도 느낄 수 있고 의료진의 고마움도 느낄 수 있는 정말



길고도 짧은 하루였다. 새로운 생명을 낳았고 나 또한 새 생명을 얻게 됐으니 기쁨은 두 배가 되었지만, 뭔가 감회가 새로웠다. 그렇게 나는 일반실로 옮겨졌고 모든 의료진의 도움으로 예쁜 둘째 딸과 함께 건강하게 무사히 퇴원을 하고 조리원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조리원에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컴퓨터를 하기도 하며, 책도 읽고, 차도 마시며 그야말로 내 세상이 따로 없는 정말 행복한 하루 하루를 보냈다. 직장 생활을 계속 해왔던 나로서는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고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했다.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어느덧 꿈만 같던 분만휴가는 끝이 났다.

육아의 시간은 어찌나 빨리 지나가던지 병원으로 다시 복귀한 나는 환자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더욱 더 열심히 일하였다. 둘째는 시골에 계시는 시부모님께 맡기고 주말마다 내려가서 보곤 했다. 다시 출근하니 모든 것이 새롭고 의욕이 넘쳤다. 그렇게 일하랴야기 보러 가랴 주말도 쉴 틈이 없자 몸도 지쳤는지 몇 개월이 지나자 신호가 왔다. 아무래도 분만 후 면역이 약해져 있는 탓에 감기부터 시작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39도 넘는 고열이 시작되었고 잔기침은 더욱 심해져 진료를 보니 폐렴이었다. 폐에 물까지 차서 입원을 해야만 했다. 의료진의 고마움을 잊을만할 때쯤 또다시 나는 병원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검사를 하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었다. 소아과 근무하면서 흔하게 봐왔던 폐렴을 내가 걸리다니...

주치의 선생님께서 폐렴은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고 특히 면역저하자나 만성질환자에게 꽤 치명적이고 사망률도 높아서 치료를 잘 받아야 된다고 하니 겁이 덜컥 났다. 또 다시 병가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동료들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꽤유를 빌어주는 고마움을 느끼며 열흘이란 긴 시간동안 입원하게 되었다. 나는 혈관이 정말 없는 편이다. 항상 겨우 찾거나 두 번 이상 찔려야 되는 경우가 많다. 하루는 아침 회진 전에 인턴선생님께서 동맥혈 가스검사를 하기위해서 손목에 동맥혈을 찾는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이리저리 몇 번을 찔렀던 적이 있었는데 고생하시는 선생님 앞에서 차마 아프다는 말은 못하고 꼭 참았던 적도 있었다.

그렇게 매일 아침 교수님과 전공의 선생님께서 회진을 오셨고, 3교대를 하며 치료를 도와주던 간호사 선생님들은 동분서주하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나의 상태와 안부를 확인했고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았다. 그 덕분에 건강하게 퇴원 할 수 있게 되었다. 평소 건강 할 때는 몰랐는데 환자 입장이 되어보니 그 아픔의 깊이를 한층 더 경험 할 수 있게 되었다.

직원들의 따뜻한 친절과 배려가 환자에게 큰 위안이 되고, 또한 직원 입장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베풀면 베풀수록 직원과 환자간의 믿음과 사랑은 더욱 더 커지는 것 같다. 이렇게 내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애써주신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금 느낀다.

내가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한 것이 최고의 행복이자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내가 받았던 친절과 배움을 다시 환자분들께 되돌려 드리려 '처음 사랑 끝까지'라는 우리병원 슬로건처럼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내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근무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경주시민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로 나아가 계속 거듭 발전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린다. 🌸

spring

염 화 미 소
拈 華 微 笑

월서 큰스님



지계 持戒

“계율은 질서… 행복해지려면 끊임없이 계행 실천해야”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가르침… 자신에게 엄격해야”
 “생명은 위아래 없이 소중한 것, 부처님 자비 실천하길…”

2021년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의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짐은 늘 그렇듯이 무감각해지면서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해 다짐 역시 다를 바 없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를 지키겠다고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자신에게 절실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무엇인가 얻어지는 것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짐이라는 것은 한순간 놓아버리기 쉽고, 그러면 지속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생활을 하면서 다짐을 지켜나가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교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수련하여 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닦는 것이 수행의 기본이요, 최우선인 것입니다. 다짐도 그와 같습니다. 자신을 닦는 수련입니다. 수행하지 않고 부처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야말로 도둑입니다. 수행은 불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다짐을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불자로서 해야 할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끈기 있고 집중력 있게 실천해 보세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스님께서서는 조계종단의 큰 어른이십니다. 스님의 출가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 1953년으로 기억되지만, 18살에 소위 ‘빨치산 소탕 작전’에 참가했었습니다. 이념보다는 고향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투경찰에 입대했는데, 시체가 즐비한 지리산 골짜기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고, 인간의 생사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20살 나이에 남원 약수암

에서 금오스님을 친견하게 됐는데, 스님께 그 공포감과 궁금증을 털어 놓았더니 금오스님께서는 “나고 죽는 것이 풀잎 위 이슬처럼 허망한 것이니, 대자유를 얻고 싶다면 출가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해 겨울 금오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신 구례 화엄사를 찾아가 출가했고, “수행자가 할 일은 오직 참선에 몰두해서 본분사를 깨치는 것”이라며 쉽 없는 정진을 강조했던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 전국 제방선원을 찾아다니며 수행했습니다.

큰스님께서는 계행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오셨습니다.

- 설하는 자는 설에 그치고, 듣는 자는 그지 듣는 것에 그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하는 사람은 설 이외에도 실천법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듣는 사람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행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수행정진의 대원력을 가졌다고 해도 한순간, 마음 하나 잘못 쓰면 그대로 끝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을 들였더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계율을 지키고 있으면 흔들린 마음도 곧 돌아오게 하니, 지계야말로 정진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수행자에게만 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가불자들도 오계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오계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고 하는 금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생하지 말라고 해서 살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살생하지 말아야 하는 인간 본연의 마음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순하게 훔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계율의 의미를 곱씹어서 긍정의 힘으로 전환시키면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깨닫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계율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율은 질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질서는 우리 생활 속에 배어 있고 지켜야 편안해집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혼란이 오게 되고, 남을 해하게 되지요. 계율도 그와 같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기본 도리를 다하는 것이 바로 계율이고 질서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끊임없이 계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큰스님께서는 동남아 불교국가 지원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2012년부터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라오스 등 동남아 불교국가에 학교 건립, 장학금 지원 등 교육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위해 (사)천호월서희망재단도 설립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동남아 불교국가 불자들이 부처님 자비로 조금이라도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입니다. 생명은 위아래 없이 소중하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이웃에도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니, 불자님들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해 말에 동국대학교의료원에 1억 원을 기부한 것도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자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힘을 보태야지요.

불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경구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금강경오가해〉에 ‘竹密不流水過(죽밀불방류수과)山高豈碍白雲飛(산고기애백운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아무리 뻥뻥하다 해도 물 흘러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산이 아무리 높아도 흰 구름 지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도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세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치의 물러남 없이 말입니다. 🌸



월서 큰스님

- 1956년 금오스님 계사로 사미니계 수지
- 1959년 동산스님 계사로 구족계 수지
- 법주사 강원 졸업 및 동국대 행정대학원 수료
- 경주 분황사 · 불국사 · 조계사 주지 역임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 호계원장, 총무원 총무부장 · 재무부장 등 종단 소임 두루 역임
- 2007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 2008년 대한불교조계종 대중사 법계 몸수
- 2013년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조실 추대
- 현재) 법주사 조실, (사)천호월서희망재단 이사장

해를 보고 달을 보라 그래야 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남도 줄고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기분도 가라앉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기운 내자, 힘내자!’ 하며 내 자신을 추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밖에서 공급받아야만 하는 에너지가 있다. 바로 자연의 에너지이다.

강호동양학자 조용헌 작가는 우리 몸도 휴대폰 배터리 처럼 충전을 수시로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충전이란 자연의 맑은 기운을 온몸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충전이 잘 이루어지면 몸의 기운이 잘 돌고 정신이 맑아지고 허무함, 우울감, 분노 등이 사라지게 된다. 특히 그런 기운이 특별히 솟는 곳을 ‘영지(靈地)’라고 한다. 글자 그대로는 ‘신령스러운 땅’으로 해석되지만, 땅의 기운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곳이다.

달리 말하면 명당(明堂)이다. 명(明)은 태양과 달이며, 아침과 저녁, 파듯함과 차가움, 열정이자 이성이다. 양쪽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는 땅에서 특별한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보통의 이론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수천 년 이어져 온 역사가 증명하는 땅이다. 한눈에도 수려하고 신비로운 풍광, 그리고 그 위에 자리한 사찰과 역사적 흔적들. 그곳에서 정신수행자들은 우주의 흐름과 기운을 느끼고, 선비들은 인간됨과 마음의 결을 다듬었고, 민초들은 신선한 삶을 달래며 간절한 소원을 빌었다. 자연에 철저히 기대어 살아야만 했던 그들은 자연에서 존재 이유와 삶의 지혜를 온몸으로 체득하며 살았던 것이다. 자연이 곧 종교이자

지혜의 보고요, 치료사였던 셈이다.

오늘의 우리는 어떠한가. 도시 문명이 발달하고 자연을 자원으로만 보면서 인간은 점점 자연으로부터 멀어져 왔다. 현대인들이 겪는 여러 정신적 문제들은 어쩌면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작가 조용헌은 강호동양학이라는 독보적 분야를 개척하며 문필가로 활동해 오고 있다. 청년기에 도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전국의 내로라하는 명산을 찾아다닌 그는 일찌감치 물아일체(物我一體), 자연과 하나가 되는 순간에 인간 삶의 모든 괴로움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었다. 평범한 여행가가 아닌 칼럼니스트로서의 집필 활동은 바로 자연의 기운을 통해 지혜와 위로를 전해주기 위한 작가만의 방편이었다.

2021년, 인류 문명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시기라는 전망이 쏟아진다. 그 틈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한편으로는 혼란과 불안,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개인이 고립되다시피 하면서 혼자서 감내해야 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다. 작가는 이 시국을 우려한다. 자연의 일부인 사람은 물, 바람, 숲, 흙, 햇빛, 달빛 등, 이런 자연의 순수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몸과 마음의 기운이 원활히 돌아가고,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으로 삶을 조화롭게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말한다.

“한국인들은 분노조절 장애가 조금씩 있다. 분노조절이 안 되어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영지를 순례할 필요가 있다. 영지는 분노를 삭혀주는 효과가 있다. 긴장하고 경직된 에너지, 에어(air)를 빼준다. ‘인법지(人法地) 지법천(地法天)’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는다 뜻이다. 땅을 본받는다 것은 땅의 기운을 흡수한다는 의미이다. 명당에서 올라오는 금빛 찬란한 기운, 이 기운이 척추뼈를 타고 올라와 머리를 거쳐 얼굴의 양미간으로 흘러내려 오는 맛을 느끼면 분노는 좀 사그라든다. 세상에는 인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대자연의 에너지가 분명 있다. 이 대자연의 에너지를 맛보는 삶과 맛보지 못하는 삶은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얼마나 너그러워 지느냐에 있다. 나와 타인, 세상사에 대한 너그러움 말이다.”

《조용헌의 영지순례》는 작가가 평생 답사하고 체험한 우리 땅 곳곳에 숨은 영지를 기록한 책이다. 오대산 적멸보궁, 계룡산 등운암, 가야산 해인사, 팔공산 갯바위, 덕유산 영각사, 대성산 정취암, 경주 문무대왕수증릉 등, 익숙한 산이기도 하고 혹은 단순한 지명으로만 알고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작가의 시원한 문체로 그려지는 처처에 숨은 이야기들을 통해 옛사람들의 치열한 삶과 지혜를 느낄 수 있다. 또 글과 함께 어우러지는 수백 컷의 화보는 풍수와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다. 어느 산이 나와 맞을지 짐작해 보게 된다.

코로나 시국이라 여행 떠나기가 조심스럽지만, 책을 통해 눈으로 읽고 보는 것만으로도 그 땅에 서 있는 듯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운이 솟는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내 주위의 나무와 꽃, 작은 숲, 햇빛, 달빛, 가까이 있는 자연에 수시로 눈길을 돌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기운을 느껴 보는 것으로도 자연의 기운을 조금은 충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조용헌 작가가 추천하는 우리 땅 숨은 영지
내 마음 이럴 땐 이곳으로

평상이 도道이다. 극단의 마음을 다스리다
강원 오대산 적멸보궁

화랑들의 무예터! 용맹함을 단련하다
경주 오봉산 주사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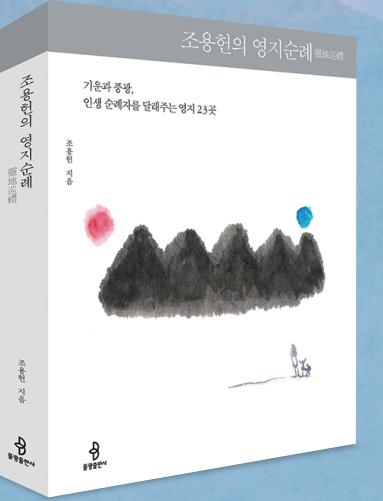
욕심을 버리고 치솟는 분노를 가라앉히다
서산 간월암

근심을 풀고 허무함을 달래다
남양주 윤길산 수증사

누구나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는 터
경상 팔공산 갯바위

경락이 열리고 기감을 버리다
경주 문무대왕 수증릉

고개마다 정의로움과 자비의 기운이 넘치다
지리산 칠불사



기운과 풍광, 인생 순례자를 달래주는 영지 23곳

조용헌의 영지순례

조용헌 지음 | 불광미디어DB 사진



강남의 빌딩숲 사이에 자리한 봉은사

서울에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봉은사

따스한 봄바람이 사랑거리는 계절이 돌아왔다.
극성을 부렸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길게 느껴졌던 지난 겨울이었다.
다가오는 봄은 겨우내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꽃을 피우는 계절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아직은 마음 놓고 봄을 즐기는 상춘객이 되어
여행을 떠나기엔 부담스럽다.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줄 근사한 봄 풍경을 지닌
서울의 사찰을 찾아가 본다.

설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 그 서울에서도 가장 고층 빌딩이 많은 강남에 자리한 봉은사는 번잡한 도심 속에서 잠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사찰이다. 현대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강남의 화려함 덕분에 봉은사의 역사도 짧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봉은사는 신라 시대였던 794년에 '견성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된 사찰로 12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개발된 강남이 눈부신 성장을 이룩할 때 묵묵히 그 곁에서 격동의 세월을 지켜본 사찰인 셈이다. 견성사는 조선 시대에 오면서 성종의 능인 선릉을 수호하고 명복을 비는 능침사찰이 되면서 봉은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후 중종의 능인 정릉을 선릉 동쪽으로 옮기면서 절의 위치를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유학을 중시했던 조선에서 불교는 억압을 받았지만, 중종의 계비였던 문정왕후가 아들인 명종이 왕에 오르고 수렴청정을 할 때 불교중흥을 도모하면서 봉은사도 함께 위세가 높아진다. 당시에 스님을 선발하는 과거시험인 승과가 일시적으로 부활하는데, 승과를 치른 곳이 바로 봉은사 앞 들판으로 지금의 코엑스 자리이다. 임진왜란 때 승병장으로 활약하는 서산대사 휴정과 사명대사 유정도 봉은사에서 실시한 승과에 급제하며 역사에 등장했다. 사명대사의 경우 정유재란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강화를 맺고 조선인 포로 3500명을 데리고 돌아왔으니 우리 역사에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봉은사 영각 옆 홍매화

봉은사는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 속에서도 서울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워 봄의 전령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서울의 봄꽃 명소로 입소문이 나 매년 봄이면 찾는 이의 발걸음이 많아진다. 봉은사 경내에는 목련, 산수유, 매화, 홍매화, 수선화 등 다양한 봄꽃이 피어난다. 바쁘게 지나온 시간을 잠시 잊고 걸음을 늦추며 여유롭게 사찰 곳곳을 산책하다 보면 꽃들을 하나둘씩 만나게 된다. 기와지붕 위로 봄꽃들이 형형색색 화려한 얼굴을 드러낸다. 아름다운 봄꽃이 사찰의 기품있는 전각과 어우러져 더욱 운치 있는 풍경으로 다가온다. 많은 꽃이 봉은사 경내에 피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영각 옆에 선 홍매화이다. 영각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선 매화나무에 분홍색 꽃이 열린다. 어찌나 색감이 진한지 멀리서도 보이는 분홍빛 꽃은 마치 커다란 솜사탕 같다. 홍매화는 햇빛을 받을 때마다 반짝이며 더욱 매혹적인 색감을 낸다. 깊은 산속 골짜기에 자리한 사찰은 아니라 고즈넉한 분위기는 덜하지만, 꽃피는 봄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노라면 바쁜 도심의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벗어던질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된다. 빌딩 숲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맑은 하늘과 봄꽃 아래서 사찰을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진다.

봉은사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씨를 볼 수 있다. 김정희는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말년을 과천에서 보냈는데 그때 봉은사를 자주 오고 갔다. 당시 봉은사의 영기 스님은 화엄경을 목판으로 찍어 인쇄하는 작업을 하며, 이를 보관하는 건물인 판전을 짓는다. 영기스님은 판전(板殿)의 현판 글씨를 김정희에게 부탁한다. 추사는 병든 몸임에도 불구하고 힘과 멋이 살아있는 글씨를 남긴다.

김정희는 '판전(板殿)' 두 글자를 남기고 그 옆에 칠십일과병중작(七十—果病中作)이라고 낙관했다. '71세된 과천 사람이 병중에 쓰다'라는 뜻으로 추사는 이 글자를 남기고 3일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진다.

수많은 세월 동안 쌓아온 내공을 뒤로하고 생의 마지막 기력을 다 바쳐 쓴 글씨라는 것을 알고 판전을 마주하니 추사의 열정과 혼이 느껴지는 것만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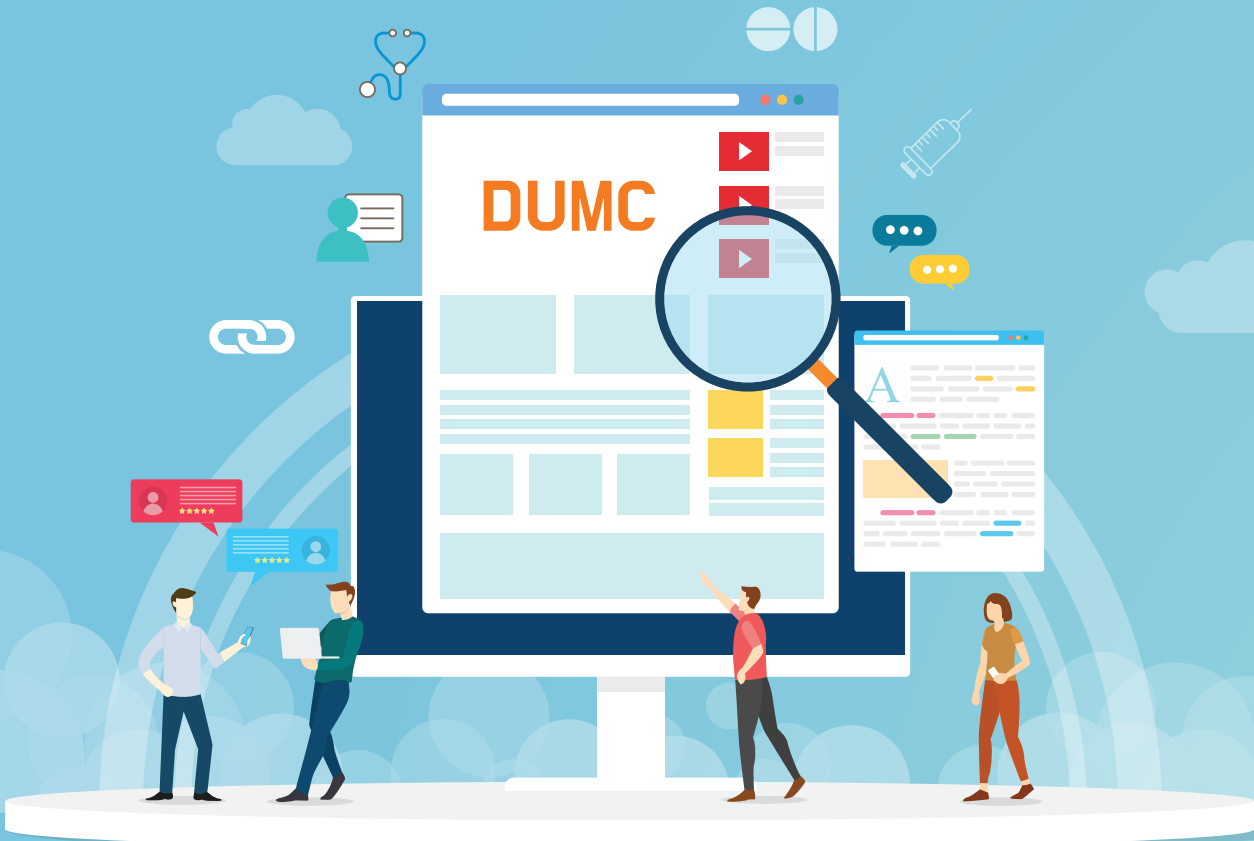
추사 김정희가 남긴 마지막 글씨,
봉은사 판전의 현판

move
DUMC

여러분들과 함께한

UCC 공모전 스토리

유튜브에서
동국대학교의료를
검색하세요.



최우수상

-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아기들의 성장 일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우수상

- My neighborhood Hospital [그랜트 앤써니 폴]
- 당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남다은]

장려상

- 어떤 의사에게 진료받지? [보혜미안]
- 진단검사의학과 혈액검사 [정주원]

동국대학교의료를 알고 일반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열린 ‘동국대학교의료원 UCC 영상 공모전’이 지난 2020년 10월 26일부터 접수를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일상에서 동국대학교병원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공모를 받았습 니다. 모션그래픽으로 동국대학교의료를 설명한 영상, 창의 적인 자작 랩으로 동국대학교병원을 노래하는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들이 응모작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중 가운데 내부 심사위원, 호응도 심사 등 공정한 심사를 통해 5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등 최우수를 받은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아기들의 성장 일기’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에서 팀으로 제출한 작품으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에 입원했던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조회수 4천뷰를

돌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2등 우수상은 ‘My neighborhood Hospital’과 ‘행복이란 무엇 일까요’입니다.
‘My neighborhood Hospital’을 만든 ‘그랜트 앤써니 폴’님은 아플 때면 늘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찾는 미국인입니다. 영어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곳곳을 소개해주는 영상으로 외국인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를 만든 ‘남다은’님은 방사선과를 전공 하고 있는 방사선사 꿈나무입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더불어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함께 평생 건강 으로 행복하자는 내용으로 제작했습니다.
3등 장려상은 ‘어떤 의사에게 진료받지?’와 ‘진단검사의학과 혈액검사’입니다.
‘어떤 의사에게 진료받지?’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두 학생

(김혜인, 김보규)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대학병원은 진료과가 너무 다양해서 아플 때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애로사항을 느꼈고 의대생으로서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 동국 대학교경주병원 홈페이지를 보며 쉽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진단검사의학과 혈액검사’는 일반인들이 채혈실에서 채취 한 피가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어떻게 검사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일반인들이 알지 못했던 진단검사의학과 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신기하다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UCC 영상 공모전을 통해서 접수된 통통 튀는 콘텐츠 들로 유튜브가 풍성해졌다는 소식인데요. 지원자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시선에서 담긴 동국대학교병원 이야기가 궁금하지시 않 으신가요? 동국대학교의료원 유튜브를 통해 UCC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만나보세요!

mini interview

1등을 수상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NICU)를 대표해 김혜인 간호사와의 1문 1답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4년도에 입사해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ICU 근무 8년 차 간호사 김혜인입니다.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팀을 대표해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NICU는 어떤 곳이죠?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ICU는 보건복지부 지정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로서 총 25병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신 시설과 첨단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신생아 집중치료에 대한 광역단위 지역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둥이(2.5kg 미만, 임신 37주 미만)를 포함한 고위험 신생아들을 집중 치료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번 공모전에 지원하게 되셨나요?

우연히 병원에서 동국대학교의료원 UCC 영상 공모전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하면 저희 NICU를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NICU에서 건강하게 퇴원한 아기들의 얼굴이 공개됐던데 허락받는 일은 어렵지 않았나요?

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ICU에서는 SNS를 통해 아기 부모님들과 소통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퇴원 후까지 신경 쓰기 위해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퇴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드리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아기들의 건강한 일상을 공유받는 등 유대 관계를 맺고 있어서 허락을 받는 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ICU 인스타그램 (@dumc_nicu)을 통해 예방접종 등 신생아 부모들이 필요한 풍성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감 전하고 싶은 말?

저희 영상에 많은 관심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모든 아기가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국대학교의료원 의료진 소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병리과

1



전문진료분야

심장 및 혈관병리, 뇌신경병리,
골 및 연부조직병리, 분자병리

경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병리학 의학박사
- 미국 보스턴, 하버드 의과대학 (Harvard Medical School) 연수
 -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뇌졸중 및 신경혈관센터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Stroke and Neurovascular Center)
 - 브리검 여성병원, 심장혈관센터 (Brigham and Women's Hospital, Cardiovascular Center)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병리과 과장

[논문]

- Effects of excessive fibrin deposit and polylactide adhesion barrier on wound healing in thyroidectomy murine wound model. Head Neck. 2018;40(6):1207-13.
- Quantitative Imaging of Cerebral Thromboemboli In Vivo: The Effects of Tissue-Type Plasminogen Activator. Stroke 2017;48(5):1376-85.
- Green-channel autofluorescence imaging: A novel and sensitive technique to delineate infarcts. J Neurosci Methods. 2017;279:22-32.
- Understanding the diagnostic yield of current endoscopic biopsy for gastric neoplasm: a prospective single-center analysis based on tumor characteristics stratified by biopsy number and site. Medicine 2016;95(30)
- Nonpigmented hair removal using photodynamic therapy in animal model. Lasers Surg Med 2016;48(8):748-62.
- Primary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 metachronously involving esophagus and stomach. Korean J Gastroenterol. 2016;67(5):257-61. 외 다수

[주요활동]

- 대한병리학회 정도관리위원회 위원 및 간사
- 대한병리학회 기획위원회 위원 등



전문진료분야

폐부병리,
신장병리,
췌담도계병리,
유방병리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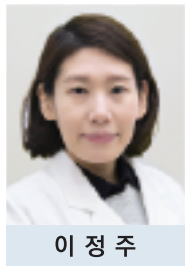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수로
- 단국대학교병원 전공의
- 삼성서울병원 전임의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조교수

[논문]

- Proposed Modification of Staging for Distal Cholangiocarcinoma Based on the Lymph Node Ratio Using Korean Multicenter Database. Cancers. 2020 Mar 24;12(3):762
- Nonstructural NS5A Protein Regulates LIM and SH3 Domain Protein 1 to Promote Hepatitis C Virus Propagation. Mol Cells. 2020 May 31;43(5):469-478
- Cortactin Interacts with Hepatitis C Virus Core and NS5A Proteins: Implications for Virion Assembly. J Virol. 2020 Sep 15;94(19):e01306-20
- Differential manifestation of ocular phenotypes in TALEN-mediated p19arf knockout FVB/N and C57BL/6J mouse lines. Genes Genomics. 2020 Sep;42(9):1023-1033
- In vivo and in vitro safety evaluation of fermented Citrus sunki peel extract: acute and 90-day repeated oral toxicity studies with genotoxicity assessment. BMC Complementary Medicine and Therapies. 2020 Oct 06;20(1):297 외 다수

[주요활동]

- 대한병리학회
- 대한세포병리학회 등



전문진료분야

산부인과병리,
비뇨생식기계병리,
위장관병리,
내분비병리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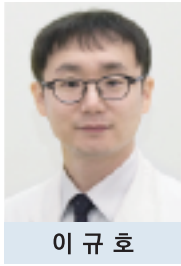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울산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
- 울산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
-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임상강사
- 강북삼성병원 임상강사
- 명지병원 조교수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조교수

[논문]

- Expression of FOXM1 and related proteins in breast cancer molecular subtypes. Int J Exp Pathol. 2016 Apr;97(2):170-7.
- Prognostic and predictive value of NanoString-based immune related gene signatures in a neoadjuvant setting of triple-negative breast cancer: relationship to tumor-infiltrating lymphocytes. Breast Cancer Res Treat. 2015 Jun;151(3):619-27.
- Overexpression of cytkeratin 17 i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papillary thyroid carcinoma and the presence of lymph node metastasis. Int J Clin Exp Pathol. 2015 May;8(5):5695-701.
- The ratio of atypical ductal hyperplasia foci to core numbers in needle biopsy: a practical index predicting breast cancer in subsequent excision. Korean J Pathol. 2012 Feb;46(1):15-21.
- Intracranial fibromatosis -a case report-. Korean J Pathol. 2011 Jul;45(S1):89-92. 외 다수

[주요활동]

- 대한병리학회
- 대한세포병리학회 등



전문진료분야

폐병리,
간병리,
림프구계병리,
분자병리

경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임의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조교수

[논문]

- The correlation between poor prognosis and increased yes-associated protein 1 expression in keratin 19 expressing hepatocellular carcinomas and cholangiocarcinomas. BMC Cancer (2017) 17:441
- Prognosis of Hepatocellular Carcinoma after Liver Transplantation:Comparative Analysis with Partial Hepatectomy.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 2017; 51: 79-86
- An Autopsy Proven Child Onset Chronic Traumatic Encephalopathy. Exp Neurobiol. 2017 Jun;26(3):172-177. 외 다수

[주요활동]

- 대한병리학회
- 대한세포병리학회 등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병리과

2



전문진료분야

소화기병리,
종양병리

경력

- 부산대학교 졸업
- 연세의료원 전공의 과정 수료 및 전문의 획득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박사 취득
- 일본연수 (RINSHOKEN)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및 경주병원 교수

[논문]

- The expression of cyclooxygenase-2 and survivin in urinary bladder transitional cell carcinoma - 대한병리학회지 (2009)
- Expression of E-cadherin and b-catenin is altered at tumor budding sites, whose number is associated with the progression of colorectal carcinoma - 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09)
- Cyclooxygenase-2 expression is related to the epithelial to mesenchymal transition in human colon cancers - Yonsei Medical Journal (2009)
- The number of Foxp3-positive regulatory T cells is increased in Helicobacter pylori gastritis and gastric cancer - ELSEVIER GMBH (2010)
- Reciprocal correlation between the expression of cyclooxygenase-2 and E-cadherin in human bladder transitional cell carcinomas - Verchows Arch (2010)
- Lethal Giant Larvae 2 Expression Is reduced or Localized at Cytoplasm in colon Adenomas and Adenocarcinomas - Korean J Pathol (2010) 외 다수

[주요활동]

- 대한병리학회 정회원
- 대한세포병리학회 정회원
- 대한분자생물학회 정회원 등



전문진료분야

소화기병리,
신장병리

경력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동국대학교부속 동국의료원 인턴 수료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교육조교
- 동국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박사 취득
- 동국대학교부속 동국의료원 전공의(해부병리과) 과정 수료 및 전문의 획득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전임의 (해부병리과)
- 삼성서울병원 병리과 전임의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및 경주병원 교수

[논문]

- Spontaneous Pneumothorax as an Initial Manifestation of Metastatic Papillary Thyroid Carcinoma 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09)
- Paraganglioma of a Bladder with a Bladder Stone. korean J of Urology (2009)
- Novel Brush Polymers with Phosphorylcholine Bristle Ends: Synthesis, Structure, Properties, and Biocompatibility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009)
- Bacterial Adhesion, Cell Adhesion and Biocompatibility of Nafion Films J biomaterials science polymer (2009)
- Micropapillary Carcinoma of the Urinary Bladder A Case Report ACTA CYTOLOGICA (2009)
- 족저부에 발생한 건활막 연골종증(1예 보고) 대한족부족관절학회 (2009)
- 토양에서 전파된 것으로 생각되는 mycobacterium fortuitum 피부감염증 대한피부과학회지 (2010)
- 몸백선을 닮은 고리매독진 대한피부과학회지 (2010) 외 다수

[주요활동]

- 대한병리학회 정회원
- 대한세포병리학회 정회원 등

동국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3



김 경 호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전문진료분야

척추디스크질환, 오십견, 안면마비,
교통사고 후유증, 관절염,
무릎발목관절통, 손발저림

경력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박사학위 취득)
- 동국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전공의
- 침구과 전문의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보건소 소장
-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장
- 동국대학교경주한방병원장
- 대한침구의학회 수석부회장

[논문]

- Inhibitory Effect of the Extract of Phellodendron amurense Ruprecht Root on Collagen-Induced Arthritis in Mice, CHINESE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2016-07-26
- Effect of heating and cooling combination therapy on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Biomed Central, Trials, 2015-06-26
- Inhibitory Effect of Root Extract of Phellodendron amurense Ruprecht on Collagen-Induced Arthritis in Mice, Springer, Chinese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2015-11-30
- 약침 종류에 따른 득기감의 질적, 양적 특성에 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13-12-20 외 다수

[주요활동]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
- 전 근로복지공단 인천지역 한방 부분 자문위원
- 대한침구학회지 심사위원
- 대한본초학회지 심사위원
- 한의사 국가고시 출제위원
- 한의사 전문의 고시 출제위원 등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전문진료분야

척추통증(목, 허리), 디스크 질환,
VDT 증후군(거북목 증후군),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어깨 질환(오십견, 충돌증후군),
퇴행성 관절염,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 관리

경력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 동국대학교 대학원 한의학(침구학) 박사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전공의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전임의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연구소 연구교수

[논문]

- Efficacy of Korean red ginseng (Panax ginseng) for middle-aged and moderate level of chronic fatigue patients: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2020.
- A Review on the Characteristics of Temperature Variation in Warm Needle. Journal of Korean Medicine. 2019.
- Efficacy and safety of electric heating moxibustion for perennial allergic rhinitis: protocol for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rials. 2019.
- Quantitative Comparison of Acupuncture Needle Force Generation According to Diameter.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2018.
- A Study on the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of Needle Force on the Acupuncture Practical Model.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18.
- Current Research Trend on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reatment for Pancreatitis.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18.
- Electroacupuncture for abdominal pain relief in patients with acute pancreatitis: study protocol for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rials. 2018. 외 다수

[주요활동]

- 대한한의학회
- 대한침구의학회 등



조 현 석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전문진료분야

안면경련, 안면신경마비,
어깨질환(오십견, 충돌증후군 비수술치료 등),
요통질환, 퇴행성관절염, 수술후관리,
급성요통, 거북목증후군, 척추통증(경추, 요추),
VDT증후군

경력

- 동국대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전공의 수료 및 전문의 취득
- 세명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침구과장
-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침구과장

[논문]

- 구강내 악관절 균형장치를 이용한 요법(FCST)의 흰다리에 대한 하지정렬 효과 1례 -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지 (2012.12.28)
- 요각통을 호소하는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레이저침 치료 1례 - 대한한방척추관절학회지 P. 51~56 (2012.12.28)
- 경혈탐촉자를 이용한 말초성 안면신경마비환자의 족부반사구 변화에 대한 임상적 고찰 - 대한침구학회지 P.1~8 (2012.02.20)
- 前額-頭顱部에서 경근 및 근막통에 의한 신경병증과 두피탈모와의 관련성에 관한 문헌적 고찰 -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지 (2011.12.15)
- 두피의 탈모유형과 경락, 경근과의 관계에 관한 문헌적 고찰 -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지 (2011.12.15)
- 전흉부 및 유선주위에서 근막통에 의한 신경병증과 경근의 유선발달과의 관련성에 대한 문헌적 고찰 -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지 (2011.12.15)
- 한방 성형의 최근 동향 -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지 P.16~29 (2009.12.24)
- 영양치료의 최근 동향 -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지 P.30~49 (2009.12.24)
- 한방피부미용의 최근동향 -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지 P.1~15 (2009.12.24) 외 다수

[주요활동]

- 대한침구학회 정회원
- 대한동통학회 정회원 등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전문진료분야

목통증, 무릎통증, 손,발마디통증, 안면감각이상,
테니스엘보, 안면경련, 안면신경마비,
어깨질환(오십견, 충돌증후군 비수술치료 등),
요통질환, 퇴행성관절염, VDT증후군

경력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한의학 석사
- 동국대학교 한의학 박사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연구초빙교수
- 동국대학교 한의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
-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임상조교수

[논문]

- Comparing the effects of individualized, standard, sham and no acupuncture in the treatment of knee osteoarthritis: a multicen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 Trials 14/1 P.1~7(2013.05)
- Efficacy of pharmacopuncture using root bark of ulmus davidiana planh in patients with knee osteoarthritis - Journal of Acupuncture and Meridian Studies 3/1 P.16~23(2013.03)
- Study to establish Ojeok-san (Five accumulation powder : Wu Ji San) administration criteria and a questionnaire to evaluate the holistic effects of Ojeok-san on Low Back Pain patients -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19/ P.~(2013.02) 외 다수

[주요활동]

- 2013년 한의사 의료분쟁 사례분석 및 대처방안 연구
- 2013년 통증성 항암화학요법 유발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전침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무작위 배정,대조군,다기관 공동 임상연구(2) 등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전문진료분야

안면마비, 교통사고증후군,
척추질환, 스포츠손상

경력

-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한의학 박사
-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전공의 수료
-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임상조교수

[논문]

- The electroacupuncture-induced analgesic effect mediated by 5-HT1, 5-HT3 receptor and muscarinic cholinergic receptors in rat model of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 Efficacy, safety, and cost-effectiveness analysis of adjuvant herbal medicine treatment, Palmijihwang-hwan, for chronic low back pain: a study protocol for randomized, controlled, assessor-blinded, multicenter clinical trial
- Efficacy of Korean red ginseng (Panax ginseng) for middle-aged and moderate level of chronic fatigue patients: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 Efficacy and safety of thread-embedding acupuncture for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외 다수

[주요활동]

- 2018년 한의사협회 온라인 보수교육 강연
- 2019년 International Scientific Acupuncture and Meridian Symposium 발표 등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전문진료분야

팔체질환[침치료+한약(사상약물치료)+섭생],
기경팔맥

경력

-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석사, 박사 학위
- 동국대학교경주한방병원 침구과 전임강사
- 동국대학교경주한방병원 침구과 조교수
- 동국대학교경주한방병원 침구과 부교수
- 동국대학교경주한방병원 진료부장&교육연구부장
- 동국대학교경주한방병원 병원장
- 동국대학교경주한방병원 교수

[논문]

- 기경팔맥에 관한 연구(난경을 중심으로)
- 기경팔맥의 맥진법인 기구구도맥에 관한 연구 외 다수

[주요활동]

- 대한침구학회
- 대한의료기공학회 등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전문진료분야

척추관절질환(목통증, 어깨통증, 무릎통증,
요통, 손마디통증, 발마디통증),
안면신경 마비, 안면경련,
퇴행성 관절질환, 수술 후 관리

경력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원 침구학 석사학위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원 침구학 박사학위
- 동국대학교 LA캠퍼스 총장 역임

[논문]

- 황금 추출물의 신경병증성 통증 유발 흰쥐에 미치는 영향
- MOK, a Pharmacopuncture Medicine, Reduces Inflammatory Response through Inhibiting the Proinflammatory Cytokine Production in LPS-stimulated Mouse Peritoneal Macrophages.
- Epimedium koreanum Nakai and its main constituent icariin suppress lipid accumulation during adipocyte differentiation of 3T3-L1 preadipocytes.
- Comparison of effect of electroacupuncture and nefopam for prevention of postanesthetic shivering in patients undergoing urologic operation under spinal anesthesia.
- 포부자추출물의 감상선기능저하증 흰쥐모델에서의 한열조절작용에 의한 개선효능 연구 외 다수

[주요활동]

- 한의학회
- 대한침구학회
- 한의정보학회
- 대한한의학추관절학회 회원 등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교직원 불자 연우회,
상월선원 만행결사 의료봉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 불자 모임인 연우회는 지난 2020년 10월 24일 경기도 양평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을 방문해 의료지원을 펼쳤다. 10월 17일 충북 괴산에 이어 경기도 양평을 방문한 연우회 회원들은 24일 오전 0시부터 걷기 순례를 이어가고 있는 사부대중을 위해 간식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김광기 교수, 백용해 교수, 최수지 교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들은 오랜 노숙과 순례로 힘들어하는 사부대중을 직접 치료하고 약을 처방했다. 이해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은 “불교종흥을 위해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나선 스님, 불자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 BBS 불교방송 ·
BTN불교TV,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난 2020년 11월 19일과 12월 1일 대외홍보 강화 및 의료를 통한 불법홍포를 실천하고자 불교계 방송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국대학교의료원 산하 모든 의료기관인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 경주병원 · 경주한의원 · 분당한방병원에서 특별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학회장 취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가 2021년도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학회장으로 취임해 앞으로 1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는 우리나라의 줄기세포재생의학 분야를 선도하는 학회로, 2009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 조직공학재생의학 학술대회(TERMIS World Congress)와 2014년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조직공학재생의학 학술대회(TER MIS AP Congress)를 개최한 바 있다.



비뇨의학과 김형석 교수, 요로 상피암
연구 관련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비뇨의학과 김형석 교수의 연구 논문이 종양학 분야 중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프론티어즈 인 온콜로지’ 2020년 10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 다루지 않은 요로상피암에서 PD-L1의 실제 임상에서의 발현율과 관련 인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이며, 향후 국내 요로 상피암에서 면역관문억제제 사용 관련 연구들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내분비내과 최한석 교수,
대한내분비학회 우수 구연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내분비내과 최한석 교수는 ‘제8회 2020 서울 국제내분비학회(SICEM) 추계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최한석 교수는 이비인후과 임윤성 교수와 함께 ‘수술 후 부갑상선기능 저하증 랫드 모델에서 AXT914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적 접근’을 주제로 학회 발표를 통해 우수 구연상을 받았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 사별 가족,
감사한 마음 담은 작품 기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는 2020년 11월 24일 임종 환자 가족이 기증한 사진 작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증은 얼마 전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맞은故 조명숙 환자의 가족으로 그동안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돌봐준 호스피스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사진 작품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게 마음의 평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3주기 의료기관인증조사 성료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지난 2020년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일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3주기 의료기관인증조사를 진행했다. 환자안전관리, 감염관리, 약물관리를 포함한 520여 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었다. 인증원 조사팀장은 “코로나19 유행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안전과 질 향상 부분의 수준 높은 수행 성과는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의 밝은 미래이며, 앞으로 병원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총평을 전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앞으로도 환자안전과 질 관리프로세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평가지표는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 ▲표준화 사망률 평가 유무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등 7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만점

을 획득하는 등 중환자실의 진료환경 및 중증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전반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재활인증의료기관인증 획득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에 선정됐다.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은 산업 재해 노동자에게 집중 재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 능력 상실을 최소화하고, 빠른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재활치료 관련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재활의료기관을 3년 단위로 평가 후 지정하는 제도다. 이동성 병원장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소아청소년과 조승만 교수,
경상북도 도지사 표창장 수상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승만 교수가 코로나19 현장 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조승만 교수는 감염병대응팀으로서 음압 격리 병실에 입원한 소아 코로나19 환자들의 진료와 치료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사회에 발생한 소아 코로나19 환자들을 모두 완치시켰다. 조승만 교수는 “앞으로도 동료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지역주민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되어 타 의료인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코로나19 방역 이상 무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전직원의 KF94 마스크 착용, 코로나 19 바이러스 박멸이 인증된 살균 소독제를 이용한 철저한 소독, 식당 비말 가림막 설치, 방문객 및 환자들의 철저한 출입관리, 전체 입원환자 및 보호자의 코로나 검사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감염관리위원회에서는 수시로 직원 및 환자 보호자에게 감염병예방 관련 문자를 전송하여 감염예방에 힘쓰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부서가 협력하고 논의 하여 더 안전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응급 상황 실전 대비 심폐소생술 교육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 실전 상황에 대비 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심폐소생술이론, 심폐소생술 실전훈련, 자동제세동기 사용 방법 등을 주제로 응급 환자 발생시 AED 위치나 사용방법, CPR 방송 등을 기본으로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에 임한 의료진은 “응급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2020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획득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의학교육 평가 4년 인증을 획득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학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와 적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양질의 능력을 갖춘 의료인을 배출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정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장은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교육의 인체 장기중심으로 수평통합을 완성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임상 교육에서는 교육 통합을 준비해 선도적인 의학교육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한의과대학
2기 동기회, 입학 40주년 기념행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한의과대학 2기 동기회는 지난 2020년 11월 22일 한의학관에서 입학 40주년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한의과대학 2기 동기회는 학교 발전기금으로 5천 7백만 원을 전달했다. 한의과대학 2기 권철현 동기회장은 “후배들이 의술과 인술을 두루 겸비한 인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금 모금에 참여해 준 동문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동일 한의과대학장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여 한의과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인연 因緣

exhibition

장소영 작가 개인전

기간 _ 2021. 04. 07.~ 2021. 04. 13.
시간 _ 10:30 ~18:00
장소 _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 제1전시실(1층)
작가 _ 장소영

2021년 4월, 장소영 작가의 네 번째 개인전이 갤러리 라메르 제1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 주제는 '因緣(인연)'으로,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얹혀있는 관계, 즉, '운명'과 '인연'에 대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캔버스 테두리에 자유분방한 원을 그리며 표현되었는데, 이는 '우주'를 상징하기도하며 촘촘히 얹혀있는 '인연'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단청에서 영감을 받은 오방색을 다양하게 해석함으로써 이번 주제인 '인연'에 대해 색다른 스펙트럼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소영 작가는 말한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찰나이기 때문이며, 아주 잠깐 피었다 지기에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의 인연 역시 잠시 스쳐지나가기에 소중한 것이라고... 이러한 인연을 이루는 겁(劫)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시간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의 시간이기때,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겨, 참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그 보다 더 귀한 인연은 없을 것이라고.

빠르고 분주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장소영 작가의 작품 전시는 따뜻하면서도 안락함의 시간을 선물해 줄 것이다.

나눔의 *gil*

월서스님,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조실이자 국제구호단체인 '천호월서희망재단' 이사장인 월서 큰스님이 2020년 12월 28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1억 원을 기탁했다. 월서 큰스님은 “코로나 19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생명의 소중함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고 있다”며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고 기부 뜻을 밝혔다. 월서 큰스님은 2012년부터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라오스 등 동남아 불교국가에 학교건립, 장학금 지원 등의 교육사업 지원하면서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여왔다.



상월선원 자비순례단 구급차 구입 지원금 전달

자승스님 등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은 지난해 11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구급차 구입 지원금 4천만 원을 전달했다. 구급차 구입 지원금은 상월선원 천막결사 1주년을 맞아 진행된 불교중흥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의 완보증서 수여 행사에서 조성민 동국대학교의료원장에게 전달됐다. 자승스님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움직이는 약사전이 되어 결사대중의 건강을 살려준 데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자승스님은 또 지난 1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발전기금(1천만 원)을 전달하고 이동식 안압계(1천1백만 원)도 기증했다.



두 노스님의 아름다운 회향

경남 합천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전국비구니회 해인사자비원 광명노인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지선스님과 호명스님이 동국대학교경주병원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 1억 5천만 원 씩 총 3억 원을 기부했다. 두 노스님께서는 “인생의 회향을 준비하는 이때에, 새 생명을 지켜주는 병원과 젊은 새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 기부할 원력을 세웠다”며 기부의사를 밝혔다. 이동석 병원장은 “기부해 주신 소중한 정재를 통해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최고의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불교병원 발전해야 불교가 발전

대전에 사는 장영희(79, 장미향심) 불자가 불교병원 발전에 써달라며 2020년 11월 1억 5천만 원을 동국대학교의료원에 기부했다. 장영희씨는 이번 기부를 위해 오랫동안 남편 이청로씨(83)와 함께 기금을 모았으며, 10년 전인 2010년에는 남편 이청로씨가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기부했었다. 장영희 부부는 다른 불교단체도 후원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장영희 불자는 “불교병원이 발전해야 불교가 발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기부하게 됐다”며 “여력이 있을 때까지 불교병원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신경과 김동익, 김광기, 류위선 교수 병원 발전기금 전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김동익 교수와 류위선 교수가 지난 2020년 11월 23일 발전기금 1억 6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김 교수와 류 교수가 지난 2018년 ‘인공지능기반 뇌졸중 통합 솔루션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이후 추가 개발지원 등에 대한 보상의 일부를 기부한 것이다. 한편 신경과 김광기 교수도 병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들 3명의 교수는 “작지만 병원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기부 뜻을 전했다.



신경과
김동익 교수



신경과
류위선 교수



신경과
김광기 교수

동국대학교의료원에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부자	기부액(원)	100만원 미만 기부자									
장영희(장미향심)	150,000,000	강보라	김덕희	김율리	동원글	배수현	여민혁	이병기	이진희	제아람	하정희
김동익	138,826,000	강석진	김도현	김은미	로별(주)	백윤정	여현스님	이상현	이해원	조경애	하현지
월서스님	100,000,000	강연주	김동일	김은영	류대안	법륜스님	여취경	이서현	이향년	조동삼	한미정
지선스님	100,000,000	강은경	김명숙	김은정	류은희	서동운	연우회	이선아	이향미	조민주	한송이
김경호	50,000,000	강지영	김무충	김은희	모종은	서미경	염윤정	이선희	이형정	조승호	한우식
법인스님	50,000,000	강해진	김문식	김응중	묘담스님	서영문	염주홍	이세임	이형경	조재로	한윤희
일초스님	50,000,000	경주시	김미경	김이수	묘전스님	서영진	오경섭	이소영	이형열	조해진	한은숙
호명스님	50,000,000	보건소	김미경	김인자	무구스님	서 준	오금자	이숙향	이혜선	조희연	한정훈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	40,000,000	경천에	김미숙	김정민	문병모	서지은	오미정	이승옥	이호준	주은영	한주형
익명(스님)	40,000,000	어테크	김미숙	김정배	박건우	서 찬	오민구	이승철	이효정	지영한	행이스님
류위선	26,710,000	계수스님	김미영	김정숙	박나희	서희주	오성은	이애영	이희지	진경애	허 봉
자승스님	21,000,000	고기연	김민선	김정숙	박동우	선도스님	오숙희	이양희	인승순	진광스님	허순례
현성스님	20,000,000	고유삼	김민성	김정혜	박동진	소선기	오진숙	이연재	임선희	진성스님	허은경
김광기	10,000,000	고현스님	김방희	김정훈	박미형	소행연	우선애	이영실	임옥준	진영숙	현담스님
우룡스님	10,000,000	고현결	김삼기	김주현	박미혜	손귀득	유광옥	이영일	임종대	차옥련	현미숙
혜룡스님	10,000,000	구병수	김상규	김지연	박상희	손기원	유묘상	이영찬	자비나	채기수	해철스님
혜선스님	10,000,000	구복심	김선경	김지예	박서연	손정은	유은정	이용찬	눌세상	채봉희	홍민재
(주)해마로푸드서비스	8,815,800	구순정	김선순	김창기	박선자	손주연	유정임	이원찬	장경희	채석래	홍민희
조계종사회복지재단	6,000,000	권경순	김선영	김치선	박성미	손주영	유주형	이원호	장순자	채은미	홍승옥
홍인숙	5,000,000	권기업	김선희	김태련	박성원	손효정	윤복연	이유나	장유민	천정희	홍은순
김동국	3,000,000	권기현	김성경	김태숙	박성주	손희진	윤수빈	이윤미	장충섭	최문전	홍은희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尼회	3,000,000	권도윤	김성권	김태영	박세진	송동현	윤수임	이은주	장태영	최보운	홍주혜
(주)정진코퍼레이션	2,400,000	권두경	김성원	김태은	박수연	송창숙	윤정선	이익수	장호근	최봉용	황인봉
이명규	1,500,000	권범선	김세민	김필자	박수혁	신경근	윤혜진	이자경	전순영	최상돈	황정희
경주금관라이온스클럽	1,000,000	권삼숙	김세희	김하겸	박순자	신경민	윤희영	이재우	정경윤	최상식	황정희
국민의 힘 경주시 여성정책위원회	1,000,000	권성옥	김소원	김한성	박신애	신경수	이강현	이재환	정경철	최완우	
권남혁	1,000,000	권수민	김솔아	김해정	박영근	신대규	이경미	이정백	정길석	최유안	
문소연	1,000,000	권일진	김수희	김현서	박옥석	신석재	이경미	이정우	정미라	최은희	
문연숙	1,000,000	권태용	김숙자	김현정	박완임	신성준	이경순	이정하	정미선	최인주	
이재정	1,000,000	권희재	김순만	김현정	박재경	신은재	이경애	이정화	정석화	최정미	
적현스님	1,000,000	김강림	김순애	김형관	박재희	신은희	이구슬	이정희	정숙희	최정민	
최승렬	1,000,000	김경섭	김순희	김혜미	박정화	신현모	이귀숙	이종득	정승택	최정숙	
황의선	1,000,000	김경숙	김시연	김혜진	박준재	안가혜	이규옥	이종철	정원기	최종기	
		김경옥	김연화	김희영	박진우	안국심	이나현	이주현	정은경	최준용	
		김경희	김영미	김희진	박철용	안대승	이도권	이준길	정은자	최진영	
		김국현	김영복	나득영	박현숙	안숙자	이동욱	이지영	정이선	최창익	
		김귀연	김영진	남유화	박현숙	안영길	이명숙	이지영	정재우	최희정	
		김남희	김예진	남현미	박효진	안현주	이문정	이지원	정재현	추경희	
		김금기	김영현	남현미	방선호	양경수	이문희	이지은	정지유	평일스님	
		김단혜	김용배	남희련	배상만	엄희경	이미영	이지호	정혜은	하경임	
		김덕례	김용숙	노미경	배서영	여민영	이미희	이진호	정휘수	하순출	

본 명단은 2020월 1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기부해주신 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홍보팀 031-961-575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 동참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혜진스님	160,000,000	국민은행	70,000,000	혜선스님	41,000,000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尼회	23,000,000	보원스님	10,000,000	임세훈	10,000,000
장영희(장미향심)	150,000,000	김경호	50,000,000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	40,000,000	향적스님	20,000,000	순희스님	10,000,000	정견스님	10,000,000
김동익	138,826,000	법인스님	50,000,000	익명(스님)	40,000,000	현성스님	20,000,000	우룡스님	10,000,000	지성스님	10,000,000
(재)아름다운동행	100,000,000	일초스님	50,000,000	명성스님	30,000,000	(주)해마로푸드서비스	13,167,400	윤희원	10,000,000	태고종(사)나누리	10,000,000
대능스님	100,000,000	정원스님	50,000,000	지용스님	30,000,000	울산불교환경연대	11,000,000	익명(스님 2인)	10,000,000	학성스님	10,000,000
월서스님	100,000,000	정호스님	50,000,000	류위선	26,710,000	공덕인	10,000,000	익명(스님)	10,000,000	혜룡스님	10,000,000
지선스님	100,000,000	호명스님	50,000,000	보림불공회(보림사)	25,690,857	백거스님	10,000,000	인성스님	10,000,000	故 홍윤식	10,000,000

동국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대표자 :)	☐ 익명요청 (모든 홍보물에 익명으로 표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본 의료원과의 관계 (※ 중복 체크 가능)	☐ 일반 ☐ 동문 (입학년도 :)	☐ 불교계 대학(원) :	☐ 교직원 전공 :	☐ 기업/단체	☐ 기타 ()
직장명	부서	직위			
우편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 자택 ☐ 직장				
휴대폰번호	유선전화				
약정					
약정액	현금	원 (₩)	☐ 현물기부(원)상당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월()원씩 / 총()회
기부금 용도	☐ 의료원(병원 · 대학) 발전기금 ☐ 학교발전기금 (☐ 의과대학 ☐ 한의과대학)		☐ 병원발전기금 (☐ 일산병원 ☐ 경주병원 ☐ 분당한방병원) ☐ 지정기금 (지정)		

납부방법

본인 자동이체 신청	월정기납 : 매월 ()일	예금주 :	이체은행 :		
본인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방법 (☐ 일시납 ☐ 분납)	입금자명 :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8037-00-000011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2-076965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68137-01-001162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자동이체(CMS)	출금일 : 매월()	☐ 1일	☐ 18일	☐ 25일	(총)원
	예금주 :	☐ 기부자와 같음	은행명 :	계좌번호 :	
급여공제	사번 :	(※ 재직 교직원에 한함)			
정보동의					
☐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수집목적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보유기간 : 5년)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 효성에프엠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 후원자는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상기와 같이(효성에프엠에스㈜, 국제청(기부금 세제혜택 근거자료)동의합니다.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인 : 서명(인)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귀하

- 동국대학교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정서 송부** : 주소 ▶ 10326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 이메일 ▶ hongbo@dumc.or.kr / 팩스 ▶ 031·961·5759
- **문 의** : 동국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홍보팀 발전기금 담당 031·961·5755

보내는 분

주소

연락처



받는 사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홍보팀

10326



기부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20. 09. 01~2022. 08. 31
고양일산우체국 제198호



이곳에 풀칠하세요.

절
제
선

당신의 귀한 마음

주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정작 손은 자신으로만 향합니다.
준 기억은 또렷하지만 받은 기억은 아련합니다.
사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훗날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눈 기억을 떠올리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참으로 따뜻한 것입니다.

주는 이의 작은 나눔이 받는 이에게는
소중한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자 하는 아름다운 선택,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당신의 미소가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귀한 마음을 응원합니다.

후원금 사용처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진료, 연구, 교육,
저소득층 환자 지원 등 후원자가 지정하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게 됩니다.

후원 안내
후원은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하며 기부하신 후원금·자산·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 예우
기부자의 이름과 기부내용을 명패로 제작·등재하여
그 숭고한 뜻을 기념하며 진료비 감면, 전담 직원 안내 서비스 및
검진권 제공 등 맞춤형 진료 및 편의를 제공합니다. (후원금별 상이)

후원 문의
동국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홍보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일산한방병원
TEL 031. 961. 5755

동국대학교경주병원·경주한의원
TEL 054. 770. 1501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TEL 031. 710. 3795

Cover Story

작품명

空(공)

2021

Acrylic and gel medium on canvas

40.9 x 53 cm

작 가

장 소 영

존재하기는 하나 보이지는 않고
보이기는 하나 존재하지 않는다.
소리는 들리나 실체가 없고
실체는 있으나 잡을 수 없다.
보이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세상을 바로보다.
空을 깨닫다.

gil 길

동국대학교의료원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 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유튜브에서 동국대학교의료원을
검색하세요.